



보도 일시	배 포 시	배 포 일시	2022. 1. 18.(화)
-------	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장 최영전 (044-215-4120)
		담당자	사무관 정호진 (re2pect@korea.kr)

국세수입 추계 개선방안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.

〈보도내용〉

- 2022. 1. 18.(화) 서울경제는 “여당의 돈풀기 압박 커질라 세수 전망치 셀프축소”, 한국경제는 “‘세입 추계’ 분기별 수정 검토” 라고 보도

〈기획재정부 입장〉

- 국세수입 추계는 경제지표 전망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회귀모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, 세출예산을 감안해 세수를 추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, 국세수입 추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“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”은 검토한 바 없으니,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